전도연 "유재석과 대학교 동기…나도 유쾌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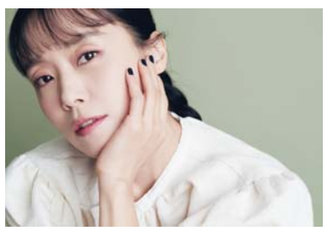
"매력 있는 코미디 시나리오 원해"

배우 전도연이 자신의 본모습에 대해 "유쾌한 사람"이라고 장담했다.

전도연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감독 김용훈) 관련 인터뷰에서 한 취재진의 물품에 붙은 '유산슬' 스티커를 보고 "유산슬인가. 나는 유재석과 대학 동기다. 학교를 같이 다녔다. 나는 그때도 전도연이었고...(유산슬은 유재석이었다)"고 말하며 웃음을 줬다.

사실 대중에게 전도연에게는 진지하고 예민한 여배우일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그간 출연한 작품들 속 캐릭터가 모두 쉽지 않은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전도연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유쾌한 사람인데 나를 작품적으로 많이 가둬놨다. 이렇게 작품적으로 가둘 수 밖에 없는 게 만약 영화 '생일'을 홍보하러 나왔다고 해봐라. '하하 호호' 하기가 편하지 않다. 이야기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래서 코미디를 하고 싶다고 얘기한다"고 했다.



코미디 장르 시나리오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도연은 한동안은 코미디 시나리오가 많지 않았다면서 매력이 있는 코미디 시나리오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코미디여도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 무조건 코미디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코미디 장르면서 나에게 매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작품이 쉽지 않다. 동기부여가 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전도연은 코미디 영화를 한다면 라미란이 주연하는 작품들과 비슷한 작품에 출연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한국 영화를 잘 챙겨본다. '걸캅스'도 그렇고, 나는 라미란씨가 좋다. 그리고 무엇인가 기대가 된다. 그녀의 웃음 코드나 코미디가"라면서도 "이번 영화('정직한 후보')는 못 봤다. 경쟁작이라서 안 봤다. 경쟁작은 일부러 안 본다"고 말해 웃음을 줬다.

그러면서 "'정직한 후보'는 나중에 볼 것이다. 기대가 된다. 그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고 동료애를 드러냈다.

전도연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과거를 지우고 새 인생을 살기 위해 남의 것을 탐하는 연희 역을 맡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속고 속이며 돈 가방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소네 케이스케 작가의 동명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한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오는 19일 개봉한다.

뉴스1

강다니엘, 활동 재개

"美서 '안녕, 다니엘' 촬영 중"

가수 강다니엘이 활동을 재개한다.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11일 뉴스1에 "강다니엘이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프로그램 '안녕, 다니엘'을 촬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편성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강다니엘은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손편지를 게재하고 "저도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겠다" "이제 일어나겠다. 행복한 2020년을 만들어가자"라며 활동 재개를 알린 바 있다.

강다니엘은 이번 방송 촬영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며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해 12월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호소, 활동을 중단했었다.

이광기, 아들 떠나보낸 후 사진작가로 시작 인생 2막

배우 이광기가 과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밝혔다.

11일 오전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이광기가 출연해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광기는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근황에 대해 "사진작가로서 활동한지가 2017년 3월에 첫 개인전을 열고 2016년에 그룹전을 시작했으니깐 벌써 4년 정도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사진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며 "저에게는 아시겠지만 아픈 가족사가 있다. 그러다보니깐 항상 제가 저를 표현할 때 꽃으로 표현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광기는 지난 2009년 먼저 아들을 떠나보낸 후의 아픔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다. 그는 "아픔이 있고 나서 신앙을 가지고 많은 신앙인들과 함께 했던 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며 이후 아이티 봉사 활동을 다녀온 경험에 대해 말했다.

이광기는 이에 대해 "2010년, 아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지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같이 못 느끼겠더라"라며 "어떤 계기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아이티에 기부하게 됐다. 그 기부한 것이 언론 매체를 통해 나가다보니 KBS '사랑의 리퀘스트' PD 분이 연락이 왔고 함께 아이티에 봉사를 가게 됐다"라고 얘기했다.

그는 "사진작가로서의 인생 2막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서 사진촬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작가들의 전시들을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경기도와 함께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5인 캐릭터 하이라이트 영상 공개

tvN 목요드라마

3월12일 첫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오는 3월12일 첫 방송을 확정 지은 가운데, 의대 동기 5인방의 관계와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공개됐다.

tvN 목요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연출 신원호, 극본 이우정)은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에서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20년지기 친구들의 케미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다. 매 작품마다 전국민적 신드롬을 일으켰던 신원호 감독과 이우정 작가가 병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드라마를 선보인다는 것만으로도 2020년 최고의 기대작이자 화제작으로 단숨에 떠올랐다. 시청자들의 기대를 입증하듯 짧게 공개된 1, 2차 티저 영상만으로도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이미 또 하나의 레전드 드라마 탄생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은 의대 동기 5인방의 캐릭터 최초 공개는 물론 이들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 약 1분30초 분량의 영상만으로도 웰메이드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먼저 의대 동기 5인방의 실질적인 정신적 지주 송화 역의 전미도를 필두로, 은둔형 외톨이 석형 역의 김대명, 노는 것도 성적도 늘 일등만 했던 자칭 인싸 익준 역의 조정석, 성격 말고 실력만 최고인 준완 역의 정경호.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것과 사생활이 완전 다른 예민한 정원 역의 유연석까지.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있던 의대 동기 5인방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나레이션으로 시작되는 하이라이트 영상은 성격이 전혀 다른 의대 동기 5인방 캐릭터에 대한 호기심과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다. 여기에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은 뭉클한 감동을 주며 본 방송을 향한 기대감을 수직 상승 시킨다.

또한 하이라이트 영상의 엔딩에 등장하는 의대 동기 5인방의 케미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오랜 역사와 '찐우정'이 느껴지는 동시에 평범한 이들이 보여줄 조금 특별한 매일이 어떨지 궁금증을 배가시킨다. 이 밖에도 삶과 죽음의 가운데에 있는 병원을 둘러싼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때론 웃음을 때론 감동을 주며 '슬기로운 의사생활' 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풀어갈 이야기에 기대감을 더한다.

한편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오는 3월12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뉴스1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주석→허니패밀리 국힙 1세대 래퍼들 총출동

엠넷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에 출연하는 1세대 래퍼 라인업이 1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주석, 더블케이, 배치기, 원썬, 45RPM, 디기리-영풍(허니패밀리), 얀키, 비즈니즈-넉없샨(인피닛플로우) 까지 총 10팀의 래퍼들이 출연을 확정한 것.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에서는 평균나이 41.3세 국힙 레전드 아재 래퍼들이 아직 꺼지지 않은 힙합에 대한 열정과 그들만의 스웨그를 표출할 예정이다. 힙합 팬들의 레트로 감성을 소환할 아재 래퍼들의 리얼리티와 경연이 펼쳐진다.

먼저 '탑골힙합 빈지노' 주석이 출연을 확정했다. 2000년대 초반, 국내 힙합 패션의 트렌드를 이끈 주석은 현재 래퍼와 스포츠맨의 삶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랩테크니션' 더블케이와 '남자들의 힙합 아이돌' 배치기도 합류한다. 더블케이는 '쇼미더머니' 첫 시즌의 우승 프로듀서이자 미국 본토에서 힙합 스웨그를 장착하고 돌아왔고, 배치기는 2000년대 중후반 가요 차트를 주름잡았던 그 시절 남학생이라면 무조건 들었던 명곡들 '반갑습니다', '마이동풍', 'Betterthan Yesterday'를 비롯해 강렬하고 스피디한 래핑으로 사랑을 받았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원썬은 특색 있는 음악을 선보여 큰 사랑을 받았던 1세대 래퍼로써 출연한다. 생업을 위해 인테리어 설비, 편의점, 호프집 등 안 해본 게 없는 생활밀착형 래퍼의 모습을 보여줄 전망. 이현배, 박재진으로 구성된 '긍정힙합 올드루키' 45RPM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우탱클랜' 허니패밀리도 돌아온다. 교수, 주짓수 코치, 무에타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디기리, 화장품 유통 사업가로 변신한 영풍으로 구성된 이들은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를 통해 '리듬의 마법사' 디기리, '힙합의 교주' 영풍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하겠다는 각오다.

최근까지도 꾸준히 개인 작업물을 발표하고 피처링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온 '방탄소년단의 랩선생님' 얀키도 출연한다. 또 한국 힙합의 클래식으로 통하는 힙합 거장 넉없샨과 19년차 실력파 베테랑 래퍼 비즈니즈가 속한 인피닛플로우도 출사표를 던졌다.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를 통해 오랫동안 만날 수 없었던 아재 래퍼들의 궁금한 근황과 그 동안 잊혀졌던 힙합에 대한 열정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1세대 힙합 팬들에게는 반가움을, 10대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